

## 최근 터키 정세 및 경제 리스크 점검

이철원 구마·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Tel: 3460-1071)

## 차 례 ● ● ●

1. 최근 터키 정세 분석
2. 미국 테이퍼링 이후 터키 경제의 위험요인 분석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

- ▶ 다소 고전이 예상되었던 2014년 3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터키 정세의 불안 요인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오는 8월 대선까지 이러한 정세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6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12월 집권당 내부의 갈등, 2014년 초 총리 측근의 부패 스캔들 폭로 등으로 터키는 미국 테이퍼링의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져 신흥국 위기축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지방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44.98%의 득표율을 기록, 지난 선거에 비해 6명이나 많은 총 49명의 자치단체장 선출에 성공하였으며, 27.03%를 득표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에 압승함.
- ▶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 완화로 최근 외환·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터키 경제가 급격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외환시장 및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정책 지속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3.9%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키 경제는 고금리정책의 여파로 2014년에는 2.8%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정치적 리스크 완화로 경제적, 정치적 위험요인이 복합되어 터키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터키 경제의 성장둔화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향후 대터키 경제협력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
  - 우리 기업들의 대터키 교역 및 투자에 있어 터키리라화 환율의 불안정성은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헷지 등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터키 경제의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무역이나 투자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터키 무역 및 투자 비중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1. 최근 터키 정세 분석

- **(터키 정정불안과 경제 리스크)** 2013년 6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12월 집권당 내부의 갈등, 2014년 초 총리 측근의 부패 스캔들 폭로 등으로 터키는 미국 테이퍼링의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져 신흥국 위기촉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 2000년대 초 정정불안을 시발점으로 하는 금융·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터키의 금융·외환시장은 최근에도 정치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2013년 6월 한 달간이나 지속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주가 급락, 환율 및 국채수익률 급등이 시작되었으며, 12월에 불거진 집권당 내 갈등은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더해져 터키 금융·외환시장의 위기감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음.
  - 터키의 정정불안이 시장에 반영되어 위기감이 확산된 2013년 12월 20일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즈 등은 신흥시장에 대한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보다 각국의 정정불안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파이낸셜타임즈는 “신흥국들이 대부분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있고, 테이퍼링보다 최루가스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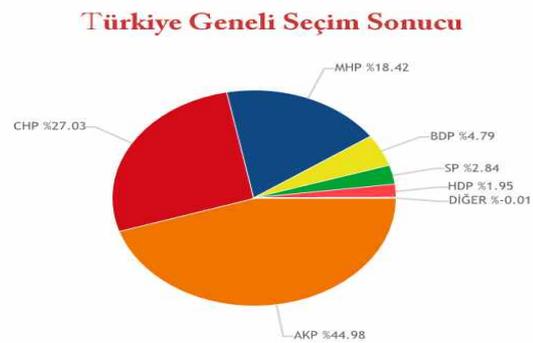
그림 1. 터키 지방선거 결과



주: 정의개발당(AKP), 공화인민당(CHP), 평화민주당(BDP), 민족행동당(MHP) 및 기타 정당(SP, HDP 등)

자료: <http://secim.haberler.com/2014>

그림 2. 터키 지방선거 결과 정당별 득표율



자료: <http://sozcu.com.tr/seim2014>

- **(3/30 지방선거 결과 분석)** 다소 고전이 예상되었던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둬 따라 터키 정세의 불안요인이 상당부분 완화됨.
  -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 측근의 부패 스캔들이 SNS를 통해 연이어 폭로됨에 따라 집권당의 고전이 예상되기도 하였음.
  - 2014년 3월 30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44.98%의 득표율을 기록, 지난 선거에 비해 6명이나 많은 총 49명의 자치단체장 선출에 성공하였으며, 27.03%를 득표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에 압승함.

1) *Financial Times*(December 20, 2013).

- CHP는 이번 선거를 통해 13명의 자치단체장 선출에 만족해야 했으며, 지난 2009년 선거에서 신흥야권세력으로 등장했던 민족행동당(MHP)은 18.42%를 득표, 8명의 자치단체장 선출에 그침.
- 한편 쿠르드 민족정당인 평화민주당(BDP)은 전국 기준으로 4.79%의 득표율에 그쳤으나, 총 9명의 자치단체장 선출에 성공하여 자치 기반을 확보함.

■ **(최근 정세 점검 및 향후 전망)** 지방선거에서 상기와 같은 집권당의 압승으로 당분간 터키의 정치적 리스크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 8월 대선<sup>2)</sup>까지 이러한 정세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선거 결과는 반정부 시위, 집권당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정정불안이 터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그동안 침묵했던 집권당의 지지세력이 다시 결집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집권당의 지지세력 재결집은 지난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인 8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집권당의 대선 후보는 지난 11년 동안 총리직을 세 번 연임한 에르도안 현 총리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인자로 하여금 후임 총리직을 수행하도록 하여 명목적인 내각책임제하에서도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 야권 내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경우 터키는 다시 한 번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대결이 대선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2. 미국 테이퍼링 이후 터키 경제의 위험요인 분석

■ **(경제 현황)** 2000년대 터키 경제는 외국인투자 유치, 내수 활성화 등으로 고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이러한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2010~11년에도 9.2%와 8.8%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였으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2012년부터 터키 경제는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됨.

- 이러한 과정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2011년에는 GDP 대비 9.7%, 2012년에는 다소 개선된 6.2%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GDP의 8.1% 정도로 추정됨.
- 지난 2013년 8월 말 이후 미국의 테이퍼링 여파로 터키의 금융시장은 주가 급락, 환율 및 금리 상승 등 급격한 불안정성을 나타냄.

■ **(리스크 요인)** 터키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종료는 터키의 외환·금융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존함.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자본 유입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터키 경제의 취약성으로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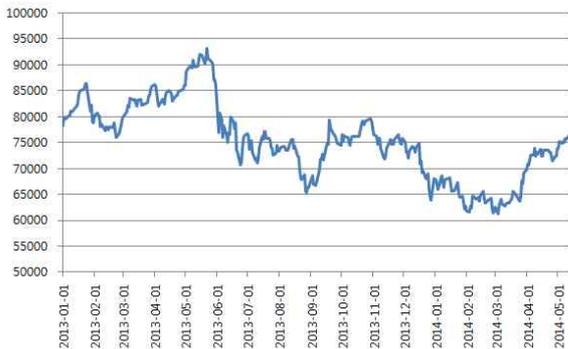
2) 터키 대선은 6월부터 선거운동에 돌입, 8월 10일 1차 투표에서 절대과반(50%+1표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주 뒤에 결선 투표를 시행함.

해 터키의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함.

- 터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와 외채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환율 급등을 비롯한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o GDP의 45%에 가까운 터키의 총외채 3,775억 달러 가운데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2013년 기준 약 1,291억 달러로, 외환보유고의 11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터키는 2013년 말 부패 수사를 둘러싼 집권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 테이퍼링의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져 금융 및 외환 시장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 o 건설관련 부정부패 수사를 두고 현 집권당 내 총리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면서 지난 2013년 연말부터 2014년 초 까지 터키리라화 환율이 폭등함.

그림 3. 터키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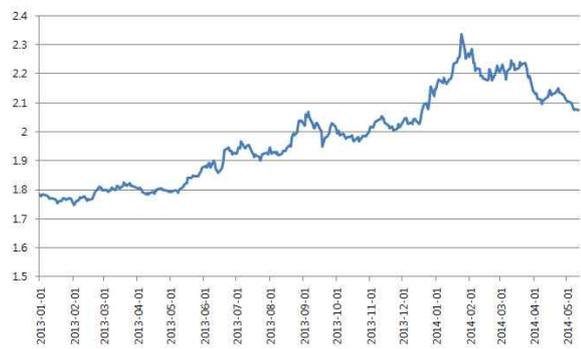
(단위: XU 100)



주: 2013년 1월 1일~2014년 5월 12일  
자료: Bloomberg(2014. 5. 13).

그림 4. 터키리라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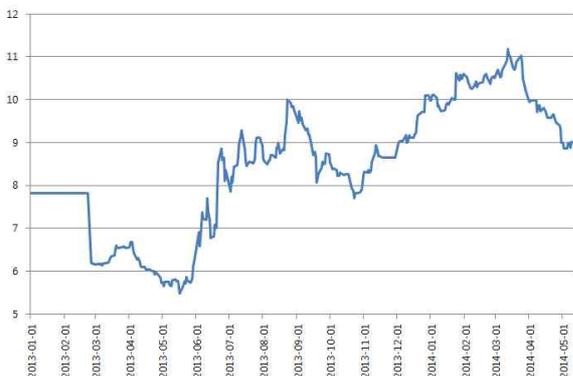
(단위: 리라/미달러)



주: 2013년 1월 1일~2014년 5월 12일  
자료: Bloomberg(2014. 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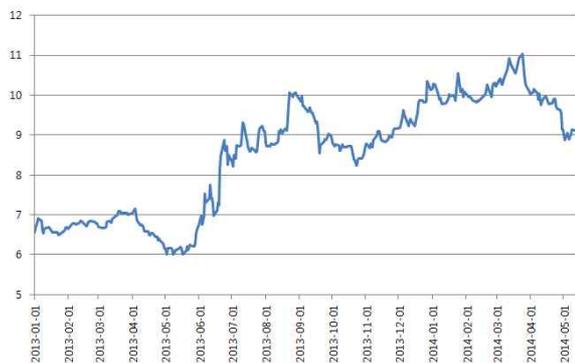
그림 5. 터키 국채금리 추이(%)

a) 5년물



주: 2013년 1월 1일~2014년 5월 12일  
자료: Bloomberg(2014. 5. 13).

b) 10년물



■ **(정책적 대응)** 터키 정부는 미국 테이퍼링 영향에 따른 자국 경제의 불안요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강도 높은 고금리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밖에 외환시장 개입 등은 장기적인 정책대안이 되지 못하였음.

- 터키 중앙은행은 2014년 1월 28일 1주일 환매채 금리를 기존 4.5%에서 10%로 1일물 중앙은행 대출금리를 7.75%에서 12%로, 1일물 중앙은행 예금금리를 3.5%에서 8%로 대폭 인상함.
  - 이와 같은 대폭적인 금리인상으로 외환시장에서 터키리라화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고금리 정책기초는 최근까지 지속됨.
- 현재의 외환보유고 수준으로는 시장개입이 어려우며, 지난 2013년 8~9월 환율급등세 완화를 위해 외환보유고의 10% 이상을 소진한 바 있으나 효과는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됨.

표 1. 터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GDP증가율(%)	8.4	6.9	4.7	0.7	-4.8	9.2	8.8	2.2	3.9
명목GDP(10억 달러)	483.0	530.9	647.1	730.3	614.6	731.1	774.8	788.0	816.2
명목1인당GDP(미달러)	7,130	7,736	9,312	10,379	8,627	10,135	10,605	10,650	10,893
소비자물가상승률(%)	8.2	9.6	8.8	10.4	6.3	8.6	6.5	8.9	7.5
정책금리(%)	13.50	17.50	15.75	15.00	6.50	6.50	5.75	5.50	4.50
재정수지(GDP대비 %)	-1.3	-0.6	-1.6	-1.8	-5.5	-3.6	-1.4	-2.1	-1.2
인구(백만 명)	67.74	68.63	69.50	70.36	71.24	72.14	73.06	74.00	74.93
실업률(%)	9.0	8.7	8.8	9.7	12.5	11.0	9.8	9.2	9.8
경상수지(10억 달러)	-21.4	-31.8	-37.8	-40.4	-12.2	-45.4	-75.1	-48.5	-65.0
경상수지(GDP대비 %)	-4.4	-6.0	-5.8	-5.5	-2.0	-6.2	-9.7	-6.2	-8.1
환율(LCU/US\$, 기말기준)	1.35	1.41	1.17	1.53	1.49	1.54	1.91	1.79	2.14

주: 2013년은 Global Insight 예측치.  
자료: Global Insight(Last updated: May 13, 2014).

표 2. 터키의 외채관련 주요 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 (10억 달러)	13.4	7.4	0.8	-5.0	0.2	16.1	22.0	40.8	23.7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 (GDP 대비 %)	2.8	1.4	0.1	-0.7	0.0	2.2	2.8	5.2	2.9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10억 달러)	9.0	19.3	19.9	17.2	7.1	7.6	13.8	9.2	9.6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GDP 대비 %)	1.9	3.6	3.1	2.4	1.2	1.0	1.8	1.2	1.2
외환보유고, 금 제외(10억 달러)	50.6	60.9	73.4	70.4	70.9	80.7	78.3	99.9	110.9
총외채(10억 달러)	170.5	208.3	250.3	281.1	269.1	291.8	304.3	338.8	377.5
총외채(GDP 대비 %)	35.3	39.3	38.7	38.5	43.8	39.9	39.3	43.0	46.3
단기외채(10억 달러)	38.9	42.9	43.1	52.5	49.0	77.3	81.8	100.6	129.1
단기외채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	22.8	20.6	17.2	18.7	18.2	26.5	26.9	29.7	34.2
단기외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	76.9	70.4	58.8	74.6	69.1	95.8	104.5	100.6	116.4

주: 2013년은 Global Insight 예측치.  
자료: Global Insight(Last updated: May 13, 2014).

###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정세 전망)**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2014년 8월 대선에서도 집권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터키 정세는 당분간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오는 8월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대립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나, 집권당의 승리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향후 터키의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 기간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선을 앞두고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치적 쟁점이 이슈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나, 대선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면 터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적 이슈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개되었던 집권당에 불리한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집권당 지지세력을 재결집시킨 점을 감안하면, 지난 5월 13일 터키 마니사주 소마(Soma) 지역에서 발생한 석탄광산 사고도 8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다만 대선 기간 동안 지난 2013년에 경험한 바 있는 집권당 내 갈등 재현과 반정부 시위 격화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는 터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현 총리 측근의 부패 스캔들이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며, 야권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이는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 전망)** 정치적 리스크 완화로 최근 외환·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터키 경제가 급격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외환시장 및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정책 지속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3.9%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키 경제는 고금리정책의 여파로 2014년에는 2.8%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sup>3)</sup>
  - 고금리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는 터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됨.
- 전술한 바와 같이 터키 경제는 급격한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 중단에 매우 취약하며, 이로 인해 터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난 2013년 12월 20일 IMF는 터키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갑자기 중단되면 단기외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sup>4)</sup>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정치적 리스크 완화로 경제적, 정치적 위협요인이 복합되어 터키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터키 경제의 성장둔화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향후 대터키 경제협력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

3) Global Insight(update: May 13, 2014).

4) IMF(2013), *Turkey: Selected Issues Paper*(December 20).

- 우리 기업들의 대터키 교역 및 투자에 있어 터키리라화 환율의 불안정성은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헷지 등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터키 경제의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무역이나 투자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터키 무역 및 투자 비중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3년 기준으로 터키는 우리의 21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대터키 수출은 약 57억 달러로 총수출의 1% 정도를 점하고 있음.
  - 2013년 말 현재 한국기업의 대터키 투자는 누적 신고금액 기준으로 약 13억 달러로, 총해외투자의 0.36% 정도임.

**KIEP**